

‘부영CC 잔여지 아파트’ 시민 의견 청취

나주시의회, 오늘 첫 공청회 공공기여 확대 방안 모색 부영 ‘변경안’ 나올지 주목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캠퍼스 신축 부지로 제공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골프장(CC) 잔여지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추진 중인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처음 열린다.

나주시 등에 따르면 ‘나주시의회 부영CC 개발 특별위원회(이하 부영CC 특위)’ 주최로 ‘나주 부영CC 잔여부지 개발사업 공익확보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8일 오후 2시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는 나주시가 추진하는 부영CC 용도 변경 행정절차 진행과 관련된 공청회와는 별개 차원에서 마련했으며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공기여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재 골프장 잔여지를 아파트 부지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계획 변경안 신청건’과 관련된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이상만(나주시의회 의원) 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임은숙 나주시 도시과장, 부영주택 관계자, 빛가람상생공동협의체 대표, 부영골프장대책시민협의회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부영CC 특위는 공청회에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 부영그룹 본사를 방문해 ‘공공성 확대’ 요구안이 담긴 입장문을 전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공청회에 참석 예정인 부영주택 측 관계자가 어떤 ‘변경안’을 들고 올지 사뭇 기대하는 분위기이지만 나주시역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자칫 반쪽 공청회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영CC 특위는 공청회에서 부영 골프장 대책 시민협의회와 빛가람 상생공동 협의체, 시민 등에 의견을 청취해 부영측에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해 9월 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날 수렴된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을 부영측에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는 부영측이 변경안을 보내올 경우 해당 안을 자문단회의에 상정 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시민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지난해 열린 2021 영랑예술학교 종합페스티벌에서 참가자들이 공연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강진군, ‘영랑예술학교’ 내달 본격 운영

강진군 시문학과기념관이 인문학과 감성을 융합해 개발한 문화콘텐츠 ‘영랑예술학교’가 다음 달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영랑예술학교’는 문화재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더 샵 252 영랑생가’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설 과목은 ▲문학과 15명 ▲미술과 15명 ▲음악과 15명이다.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연령 제한과 수강료는 없다.

강진군청 홈페이지나 시문학과기념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simunhak)에서 신청서

를 내려받아 신청하면 된다.

영랑예술학교는 다음 달 7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 총 43회에 걸쳐 진행된다.

강의실 중심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흥미 위주의 인문학적 교양을 바탕으로 한 장르별 문예사조 강의와 실기 교육으로 꾸며졌다.

윤성일 강진군 문화예술과장은 “유년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예술가의 꿈을 늦게나마 이를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학교를 2년째 개설,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 환경 위해요인 제거·탄소중립 6대 전략 추진

총사업비 665억원 들여 신규 5건·현안사업 25건

함평군이 미세먼지 등 환경 위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함평군의 6대 전략과제는 대기 오염원 저감 및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전의식 함양 및 생태관광 중심 미래비전 제시,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폐기물 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및 자원순환성 개선, 상·하수도 정비사업 추진 및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 하수처리장 재생사업 추진

등이다.

전략과제에 따른 주요 사업은 신규사업 5건, 현안사업 25건 등 30건이며, 총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82억원 늘어난 665억원이다.

대기 오염원 저감을 위해 36억원을 투입하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자연자원의 체계적인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 중심지로 도약을 위해 대동댐 일원에 90억원을 들여 생태탐방로를 조성한다.

또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59억원을 들여 함평읍 장년리 일원에 종이, 플라스틱,

틱, 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선별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한다.

함평군은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강변여과수 개발,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상·하수도 정비 사업에 5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최근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문제가 대두 되면서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만큼 행정력을 집중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 화순군, 3월 4일 개강

화순군이 ‘100만 유튜브 도전!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3월에 개강한다.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은 화순군 청년센터 ‘청춘들락’ 3층 미디어공작소에서 3월 4일 개강, 4월 2일까지 5주간 진행된다.

군은 만 18세부터 49세의 지역 청년 15명을 수강생으로 모집, 총 10차례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커리큘럼은 콘텐츠 기획부터 영상 촬영, 제작, 편집 등 실습 중심으로 구성했다.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한 영상 촬영 기술, 전문 영상 편집 기술 프로그램인 ‘프리미어 프로’를 활용한 편집 기법을 교육한다. 지적재산권, 현직 PD가 들려주는 코로나19 이후 미디어 등 특강도 포함됐다.

수강을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25일까지 화순군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화순군 미디어 공작소 2층 사



지난해 열린 청년 크리에이터 교육 참가자들이 청년센터 ‘청춘들락’ 3층 미디어공작소에서 미디어 실습을 하고 있다. <화순군 제공>

무실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빠르게 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청년의 1인 미디어에 대한 관심과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며 “크리에이터 프로그램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영상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역량을 갖춘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문학상 제정... ‘문림의향’ 명성 잇는다

군의회, 운영 조례 의결

장흥군이 가사문학과 현대문학의 고장으로 명성을 알리기 위해 ‘장흥군 문학상’ 운영조례(안)을 의결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장흥군의회에 따르면 군 의회는 최근 백광철 의원 등 7명의 공동발의로 매년 고전문학의 맥을 이어온 가사문학과 소설, 수필 등 현대문학상 등 2개 부분의 수상자를 선정하는 ‘장흥군 문학상’ 운영조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표발의에 나선 백광철 의원은 “장흥지역이 가사문학이 호남권에서 28% 점유한다 현대문학의 대가인 이창준 문학인 등의 명실상부한 ‘문림의향’

고장의 명성을 이어가고 문학인프라 구축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번 운영조례(안)는 군 집행부가 전남도의 조례 사전보고 절차만 거치면 빠르면 올 상반기 안으로 공포 시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0년부터 조선대 백수인 교수를 비롯한 장흥출신 문인들을 중심으로 지역 이름을 담은 문학상 제정에 대한 의견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전남 지역 22개 시·군 가운데 보성군의 ‘조정래문학상’ 등 7개 지자체가 지역 문학상 조례를 마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담양군 ‘어린이 장난감 무료 대여 사업’ 운영

담양군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성회관 4층 장난감도서관에서 ‘어린이 장난감 무료 대여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담양군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장난감 구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어린이들이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19년 9월 담양군여성회관 4층에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을 개소했다.

290여점의 다양한 장난감과 각종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철저한 소독을 거쳐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가입 회원 수 180명에 한 달 평균대여 수는 122건으로 지역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아이들을 위해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른 선호 및 희망 장난감, 도서 등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다.

군에 거주하는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1가정에 장난감 2점과 도서 2권을 최대 2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장난감도서관 운영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버저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